

함평군, 샤인머스켓 육성 '팔 걷어붙여'

수출 경쟁력 제고 위해 현장 영농교육 실시

관내 포도농가 40여명 참석...참여 농가 호응

함평군이 '1시군-1특화작목'으로 선정된 샤인머스켓 포도 육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월 28일 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함평군이 '1시군-1특화작목'으로 육성중인 샤인머스켓 포도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영농교육이 실시됐다.

지역 포도과원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취한국포도수출연합회, 함평꽃무릇 수출포도영농조합법인 관계

자, 관내 포도 재배농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수출 상대국에 맞는 병해충 방제법부터 경영기록장 작성요령까지 고품질의 수출용 포도 재배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실시돼 참여 농가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무인방제기, 방열순환팬 등 우수 품질의 '함평포도' 생산을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



함평군은 샤인머스켓 포도 육성을 위해 현장 영농교육을 실시했다. (가운데) 함평군 관계자가 포도 재배 농가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 (가운데) 함평군 관계자가 포도 재배 농가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

획'이라며 "포도가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주관한 '1시군-1특화작목 육성 공모'에 샤인머스켓 포도가 선정돼 사업비 3억6천만원을 확보했다.

영암군, 탄소중립 실천 위한 '車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최대 10만원 지급

영암군은 탄소를 절감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운전 실천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3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자동차 운행 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1대,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 및 승합자동차가 대상이며,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등)과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영암군 참여 차량은 올해 총 48대로 선착순 모집하며, 참여자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차량 전면 사진,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필요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증빙자료로 등록하면 신청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 중 일상생활에서 실천이 가능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군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목포시, 지역산업맞춤형 수산·식품산업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선정

국비 3억9천만원 확보...수산·식품 관련 취·창업 지원

목포시가 2020년,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3년 연속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사업비는 총 4억4천만원으로 시는 사업비의 90%인 국비 3억9천만원을 확보했다.

공모 명칭은 '목포형 수산·식품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으

로 목포시와 (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 목포상공회의소가 협업해 세부 사업으로 수산·식품산업 취업지원 사업, 수산·식품 성공패키지 창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수산·식품산업 취업지원 사업은 구직자에게 ▲탄탄 job(잡) 경력분석 취업지원 서비스 ▲기업 맞춤형 취업연계 ▲구직 중소기업 인식이

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미스매칭률을 최소화하는 취업연계 사업이다. 2021년에는 구직자 337명이 대상산업 등의 수산업, 식품제조업 분야 기업에 취업했다.

수산·식품 성공패키지 창업 지원 사업은 관광 및 수산·식품 관련 예비창업자를 모집해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기술교육 및 창업실무·실습교육 후 1인당 최대 1천만원 내에서 초기사업비를 지급한다.

또한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창업전문가들이 경영·회계·사업계획 작성 등을 멘토링하고,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시 관계자는 "목포형 수산·식품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 등에 적극 응모하고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기자

영광군,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착공

2023년 완공 예정

영광군은 3월부터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공사 착공에 돌입하여 전국에서도 손꼽힐 만큼 품격 높은 센터가 2023년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임신·출산·육아 통합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3월 공사에 착수하여 23년 5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는 굴비골영광시장 주차장 일원에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3,332㎡ 규모로



청년점포·청년센터·아동놀이터·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갖춘 복합건물로 조성된다.

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영광군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무안군 '농촌 인력부족 해소' 발작물기계화 본격화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과 인력난 해소에 앞장



무안군은 지난 2월 23일 해제면 일대에서 농업인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체작물 기계화를 위한 농기계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무안군에서 추진 중인 농기계 장기임대사업인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에 참여 중인 작목반이 육묘 기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실시됐다.

이날 농업인들은 시연회와 함께 육묘방법에 대한 이론교육도 병행 수강함으로써 발작물 기계화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과 농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무안군에서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영농단체 5곳을 대상으로 실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농기계화 사업 중 하나이다.

이 사업은 콩과 양파, 고추, 마늘, 고구마, 양배추 등 발작물을 대상으로 파종에서 수확까지 농작업에 필요한 기계를 군에서 구입해 작목반 등에 5~7년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임대료는 구매가격의 20%를 내구연한 동안 나누어 지불하며, 작목반에서는 농기계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주변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도 할 수 있어 지역 농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김향금 농촌지원과장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발작물 재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이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발작물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신안 지도읍, 두번째 태양광 배당금 지급

작년 11월 29일 지도읍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에서 첫 배당금을 지급한 데 이어 2월 26일 두 번째 태양광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최근 준공식을 갖은 전국 최대규모 150MW 신안태양광발전소에서 주민 참여에 따른 수익금을 지도읍 전체 주민(3,596명)을 대상으로 1인당 11만원에서 최대 26만원을 33개 마을 경로당에서 일제히 지급하였다.

지도읍 인구는 2020년도에는 전입 418명, 전출 457명으로 총 39명이 감소하였지만, 태양광 이익 배당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2021년도에는 전입 429명, 전출 364명으로 총 65명이 증



가했다. 신안군은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을 통해 햇빛연금, 바람연금 확산을 위해 2,600페이지 분량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백서'를 제작하고 있으며 올해 3월경에 발간할 계획이다.

신안=이덕주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